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3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희 가정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 양 후 -

저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초등학교 졸업 무렵 안산에 살고 계신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전도했던 친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며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되고 직장에 다닐 때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겠다고 남편이 약속하였는데, 독실한 불교신자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저도 교회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에 시어머니님 남편은 안 되고 저는 허락하셔서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두 딸을 데리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같은 아파트에 은혜와진리소식지를 전해주는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복음지를 받아서 읽으며 저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나중에 결신하고 교회에서 그 구역장님을 뵈었을 때 무척 반갑고 고맙았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 권사님이 되신 그 구역장님과 제가 같은 교구에 소속하여 함께 교회에서 성전미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입시를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더니 대학생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단호하게 이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이들의 믿음과 예배하는 생활을 위해,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오래 변함없이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한지 2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았던 남편이 연약함을 깨닫게 된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남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것처럼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아이들 또한 열심히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신앙심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였지만 구역장 직분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교구장님의 권면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직장에서 퇴근한 후 저녁에 구역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 거듭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크나큰 축복이며 행복이었습니다. 빠짐없이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강해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성경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고, 매일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더하여지며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쌓이면서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송이꽃처럼 달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달라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염려되어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귀촌하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저는 남편의 고향보다 거제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 저의 친정할머니와 2, 3년을 함께 지내고 돌보면서 새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백세 가까이 된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릴 기회인 것 같다고 하여 자녀 둘은 안산 집에 두고 저희 부부만 내려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그만둬 따라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전기공사업체의 대표님에게 1년 정도 거제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더니 대표님이 그동안 제가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데 대해 고마워하시며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일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공사를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제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안 되면 퇴사하여 다른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가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상하신 손길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안산에 올라와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예배중심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가 거처를 옮기는 결정을 한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거제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이지만 감사하게도 김해 장유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멀리 다니는 것을 남편이 반대하지 않고 함께 장유성전에서 예배생활을 지속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서도 막상 남편이 흔쾌히 저의 의견에 동조하는 순간 저는 놀라서 “정말? 정말이예요?”하고 되물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은혜와진리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아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교회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신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두 딸 모두 유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에서 생활하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정년이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주로 안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는 거제와 안산을 오가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첫째 시험은 준비기간이 짧아 아쉽게 불합격했지만 다음 해 시험에서 합격하여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위탁관리회사 두 곳에 공채로 합격하여 그 중 업계 1위로 알려진 회사에 입사한 후 안양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어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며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리소장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 세심하게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희에게 좋은 때에 이루게 하여 주신 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교신자였던 할머니가 몇 해 전 병환으로 한동안 저의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저를 아끼기 때부터 홀로 키워 주신 사랑하는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저의 기도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아흔 일곱 되신 할머니를 저의 집에 모셔왔는데 심한 이명과 두통을 앓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게 할머니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되어 할머니를 잘 보살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최근 2년은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의지하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풍성하게 체험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교역자님들과 교구의 제직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영광돌립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2권 (제9단원 : 시험을 이기는 성도)

(제41과) 시험당한 형제를 돕는 방법

- 본문 : 로마서 8:26-28

• 요절 :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 찬송 : 384장(새찬송가 585장), 402장(새찬송가 360장)

우리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겪은 다음에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웬만한 시험은 너끈히 이겨내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을 영접한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잘 모를 뿐 아니라 시험을 이겨낸 경험도 적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당황해하고 자칫하면 실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경우 믿음의 형제들이 시험을 당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격려해 준다면 연약한 형제가 힘을 얻고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한 형제를 돕는 일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험에 빠진 형제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한 형제를 돕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1. 시험당한 형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아마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까닭에 그 결과로서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인과 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불행을 당한 형제에 대해서 동정적인 자세를 갖기에 앞서 오히려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곤경에 직면한 형제에 대해 정죄하게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롬 14:4)고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한 걸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원인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겨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난 형제를 정죄하는 위치에 서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위치에 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롬 12:15).

2. 시험을 당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11) 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도라도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면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시험을 당한 연약한 형제에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엡 6:12).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써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약 5:15)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되 특별히 시험을 당한 형제를 위하여 그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3. 시험당한 형제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행동하고 다른 형제들을 불신하게 되기 쉽습니다.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더구나 구역 모임에는 더욱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싫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영적 싸움에 너무 지쳐 있어서 곁에서 그를 도와줄 지원군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으로는 마치 다른 아무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것처럼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과 권면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한 형제에게는 더욱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권면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의 투정을 간호하는 가족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더 따뜻한 배려를 하듯이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시험당한 형제의 마음을 치료하시어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신앙의 길에서 이탈시킬 목적으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두루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의 제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성도가 마귀의 도전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필코 승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가오는 시험의 정체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마 26:41).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시험에 드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 대신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시험당한 형제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td data-kind="ghost"></td> <td data-cs="2" data-kind="parent">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td> <td data-kind="ghost"></td> <td data-cs="2" data-kind="parent">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td> <td data-kind="ghost"></td> <td data-cs="2" data-kind="parent">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td> <td data-kind="ghost"></td>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	--	---	--	--	--	---	--